

# 세금계산서와 차이 나는 매출액 (Ⅲ)

글\_ 조완석\_ 공인회계사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가 종결되는 경우 관련파일에는 계약서, 최초 총예정원가계획서, 수정계획서, 회의록, 통신문, 검토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일련의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 비로소 진행률매출을 인식하기 위한 내부통제 절차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회사가 인식한 진행률매출액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진행매출액을 인식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진행매출액을 인식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총예정원가의 산정이라는 것은 지난 호에서 설명했던 사항이다. 또한 이 총예정원가의 산정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자의성의 배제'라는 것도 이미 언급했었다. 이제 이 '자의성의 배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해보고자 한다.

총예정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실무적인 접근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개발부서 또는 제조부서에 PM(Project Manager)이 개별 프로젝트별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담당 PM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 진행에 대한 과정 전체를 통제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예정원가의 산정은 반드시 관리부서가 아닌 개발부서 또는 제조부서인 현업부서에서 산정되어야 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정원가 산정의 출발점이다.

## 제조경비 추정은 재료비, 노무비 등 연동시켜야

이제 총예정원가의 산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정했으면, 총예정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이 부분이 회계적인 기초가 없는 현업부서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나 반드시 담당자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총예정원가는 크게 재료비, 노무비 및 제조경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재료비에 대한 예정액의 산정은 큰 어려움이 없다. 이는 PM들이면 누구보다도 관련 원재료의 시장가격이라던가 소요량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비도 전체 총투입인원에 대한 추정이 어렵지는 않다.

그러나 노무비의 경우 일반 기업의 현실이 1명의 개발자가 1개의 프로젝트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프로젝트에 중복해 참여하곤 한다. 이것이 총예정노무비원가 및 실제노무비원가의 산정이 어려워지는 이유다. 총예정원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동되는 참여인원에 대한 해당 투입시간과 해당임료를 조정해줘야 하며, 실제원가에 대해서는 개별 프로젝트별로 투입된 인원, 시간 및 임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조경비는 개별 항목별로 산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나 이는 효익·비용의 측면에서 비용이 너무 커질 수 있는 관계로 실무에서는 재료비 또는 노무비나 기타 다른 연동요인에 연동시켜서 추정액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총예정원가 변동사항내역을 반드시 문서화해야

이제 총예정원가의 산정 작업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총예정원가의 산정작업에 고려되었던 사항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발담당자 별로 문서화되어야 하며 PM은 이러한 모든 문서를 취합해서 검토, 수정 및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최초로 추정된 총예정원가에서 변동내역과 원인을 기재하고 승인 받은 후 이와 관련한 내역을 문서화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가 종결되는 경우 관련 파일에는 계약서, 최초 총예정원가계획서, 수정계획서, 회의록, 통신문, 검토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일련의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 비로소 진행률매출을 인식하기 위한 내부통제 절차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회사가 인식한 진행률매출액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진행률매출액 인식을 위한 마지막 고려사항인 회계처리 및 업무협약에 관해 고민해보기로 하자. **KOVN**